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심리 중에서도 특히, 한국 청소년의 안전관련 토착심리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고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고유한 표상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이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수준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 청소년 안전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안전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안전효능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안전사고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안전효능감 및 안전사고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안전효능감의 감소 경향성, 2)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 3)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4) 부모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사회문제 맥락 속에서의 접근: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주요어 : 안전에 대한 토착심리,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 안전효능감, 안전사고 예방행동, 부모의 영향,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의 예방, 자기효능감

[†] 교신저자 : 박영신,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spark@inha.ac.kr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형 안전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매우 컸으며,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누적되어온 안전사고의 경험은,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교통(안전-61% 보통-301% 불안-638% 건축/건설(안전-54% 보통-300% 불안-647%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은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통계청, 2001b). 한편 국제 비교 결과를 보아도 한국사회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인구 백만명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한국(198명)은 미국(150명), 대만(108명), 독일(95명), 일본(71명), 영국(58명)보다 훨씬 많다(통계청, 2001a).

사회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도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1997년에 9,265건, 1998년 14,481건, 1999년 15,983건, 2000년 15,969건, 2001년 18,941건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지급한 보상금은, 1999년 62억 8700만원, 2000년 67억 7700만원, 2001년에는 87억 6900만원으로 크게 증가(교육부, 2002)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전국 시도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 접수된 심각한 안전사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전공제회에 보고되지 않고 학교 자체 내에서 처리하거나 사소한 안전사고들은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으로도 안전사고는 여러 면에서 계속 증가하여 왔다. 예컨대 자동차사고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980년에 14.7명에서 2000년에는 21.3명으로, 1일 평균으로는 1980년에 15.3명에서 2000년에 28.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 10만명 당 부상자 수도 1980년에는 292.8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890.0명으로, 1일 평균으로는 305.0명에서 1169.8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다(통계청, 2001b). 한국의 학교와 사회 모두에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증가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실한 안전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고 발생 장소가 학교이든 사회이든 간에 안전사고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에 임기응변식의 미봉적 대처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한국인의 안전의식과 행동적 특성 및 역동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예방 대책 마련의 건설할 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심리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청소년의 안전관련 토착심리를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안전의식과 관련된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고, 한국 청소년의 안전효능감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도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부모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을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이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수준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 청소년의 안전효능감 수준을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효능감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셋째, 안전효능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안전사고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안전효능감 및 안전사고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안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대체로 실태조사에 관심을 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실태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나, 그러한 현상의 기저에 있는 한국 청소년의 고유한 심리적 특징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박영신, 2001)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의 변화 및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하며, 부모자녀관계의 틀에서도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소년 문화 이해의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 청소년의 안전의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한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한국 청소년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전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교수준별, 성별¹⁾, 안전효능감수준별²⁾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사고의 내용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반응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보면, ‘놀이/장난 중 사고’(23.9%)가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일상생활의 가벼운 외상’ ‘운동 중 다침’ ‘계단에서의 사고’ ‘화상’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초 중 고 대학생의 학교수준별 분석 결과를 보면, ‘놀이/장난 중 사고’에서 초(27.1%) 중(25.8%) 고등학생(26.4%)은 유사한 반응률을 보이거나 대학생(13.2%)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외상’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대학생은 ‘운동 중 다침’(14.6%)에 대한 반응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볼 때, 전체 반응경향과 일치하여 ‘놀이/장난 중 사고’ ‘교통사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외상’의 순서로 나타나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운동 중 다침’이 더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계단에서 사고’나 ‘화상’이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안전효능감 수준별로는 안전사고의 내용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

- 1) 여기에서 학교수준별, 성별 분석은 박영신과 김의철(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즉 박영신 등(2001)의 연구에 제시된 학교수준별 자료 중에서 인문고와 실업고 자료를 여기에서는 고등학생 자료로 합하여 재분석하였다.
- 2) 안전효능감수준별 분석은 김의철, 박영신과 박동현(2001)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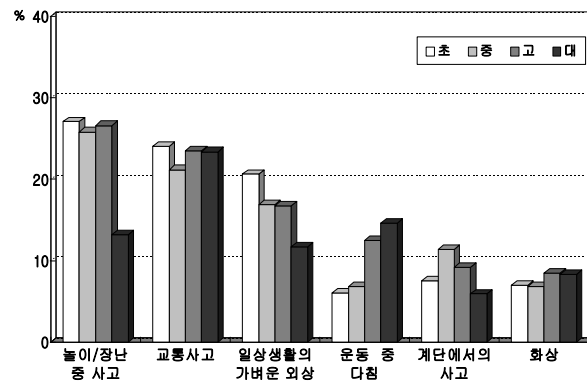


그림 1.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사고 내용

다. 즉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전체적인 경향성과 동일한 범주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안전사고의 원인

그림 2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경향을 보면, ‘자기조절결여: 부주의’가 평균 60.7%로 매우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상대의 부주의’가 14.1%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이외에 ‘과로’ ‘시설/환경 불량’

‘안전의식 결여’ ‘법규/규칙 위반’이 10.0% 미만의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자기조절결여: 부주의’에 대해 초등학생(66.8%)의 반응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62.1%) 고등학생(59.7%)의 순서이며, 대학생(54.1%)의 반응률이 가장 낮았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대학생의 반응률이 가장 낮았다. 한편 ‘법규/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학생(8.7%)이 초(2.1%) 중(4.1%) 고등학생(3.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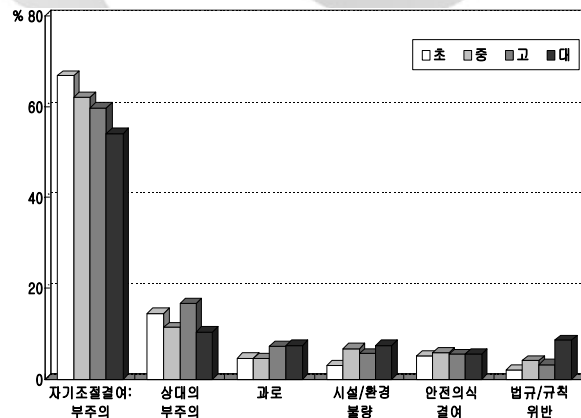


그림 2.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사고 원인

를 나타내었다. 그 외의 안전사고 원인들에 대해서는 학교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안전사고의 원인 지각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경향과 일치하여, ‘자기조절결여: 부주의’ ‘상대의 부주의’ ‘과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안전효능감 수준별로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전체 경향과 일치하였으나,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자기조절결여: 부주의’ (63.9%) ‘상대의 부주의’(14.2%) 다음으로, ‘안전의식 결여’(5.8%)가 ‘과로’(4.6%)나 ‘시설/환경불량’(4.4%)보다 약간 더 반응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안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더 많이 하였다.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측면 즉,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와 사회적 지원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안전사고를 당한 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족(70.9%) 친구(12.6%) 주위사람(9.0%) 의사/간호사(3.2%) 없음(1.9%)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모든 학교수준별 집단에서 동일했다. 단 상대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족’의 반응률이 낮았고, 그 대신 ‘친구’에 대한 반응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볼 때, 남(65.3%) 여(76.3%) 학생 모두 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한 점에서 공통적이나, 남학생은 두 번째로 친구(17.7%)를 많이 지적하고 주위사람(8.9%)이 세 번째로 지적되는 반면에, 여학생은 주위사람(9.1%) 다음으로 친구(7.7%)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안전사고 후에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안전효능감 수준별 분석결과는 전체 경향과 일치하였다. 즉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간에 사회적 지원 제공자에 대한 반응율의 순서에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사회적 지원의 내용 면에서 보면(그림 4 참조), 전체적으로 ‘병원후송/응급조치’(40.5%)의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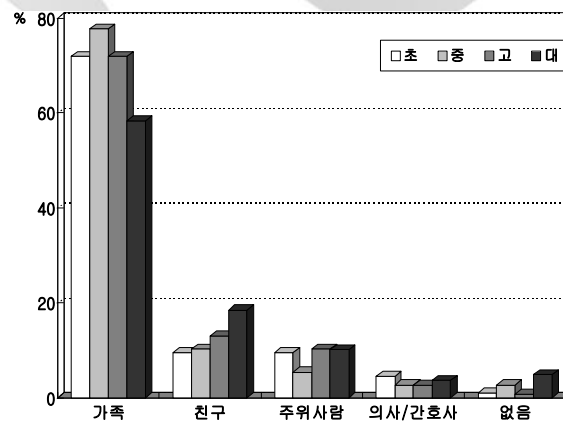


그림 3. 초, 중, 고, 대학生の 안전사고 후 사회적 지원 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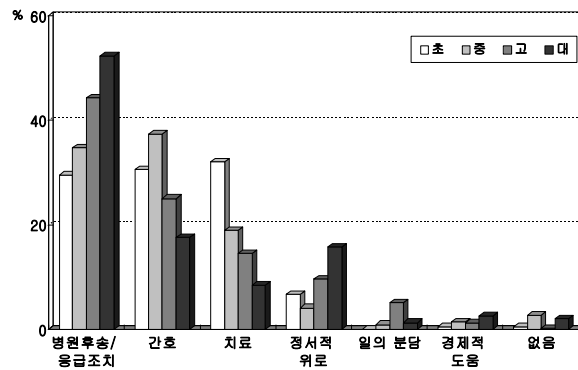


그림 4.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사고 후 사회적 지원의 내용

응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간호’(27.8%) ‘치료’(18.0%) ‘정서적 위로’(8.7%) ‘일의 분담’(2.5%) ‘경제적 도움’(1.3%)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초 중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병원에 후송되고 응급조치를 받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위로도 대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성별 및 안전효능감 수준별로는 하위집단간에 차이가 없이 전체적인 반응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안전사고의 예방

그림 5는 ‘안전사고가 난 후에 그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기조절: 주의/조심’이 74.7%로 매우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그 외에 ‘없음’ ‘건강관리’ ‘법규/규칙 지킴’은 모두 10.0% 미만의 낮은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서 ‘주의/조심’ 범주에 포함된 대표적인 반응은 ‘위험한 장난/행위 안함’ ‘뛰거나 서둘지 않음’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음’ 등이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자기조절: 주의/조심’의 반응률이 가장 높

은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초등학생(80.1%)의 반응률이 가장 높고, 점차 낮아져서 대학생(65.1%)의 반응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없음’이나 ‘법규/규칙 지킴’에 대해서는 네 집단 중에서 대학생의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인 반응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안전효능감 수준별로 볼 때,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77.8%)이나 낮은 집단(71.0%) 모두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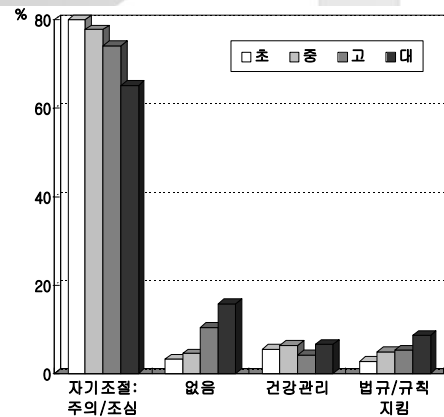


그림 5.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조절: 주의/조심'에 대한 반응률이 가장 높은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그 다음으로 건강관리(5.4%), 법규/규칙 지킴(5.2%) 없음(5.0%)의 순서를 나타내는 반면에,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없음(13.1%)에 대한 반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안전사고 이후에 아무런 예방조치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 안전효능감의 변화

안전효능감의 정의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Bandura의 정의에 기초하여, 박영신, 박동현과 김의철(1998)은 “안전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안전효능감을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 즉 안전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나 영역에 대한 자기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Bandura, 1997).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주된 내용으로서 자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 및 조절, 사회와 주변 사람의 도움을 유발하는 효능감을 포함하였다. 자기와 관련된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의 심리로서 정서와 인지, 및 개인의 행동에 대한 조절 및 통제를 포함한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에서 자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기조절효능감이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외에도, 환경통제나 사회적인 지원과 관련된 사회자원활용효능감 사회적지원유발효능감을 하위

변인으로 다루었다.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박영신, 1997)에 의하면, 이들 하위변인들은 .74~.88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박영신, 박동현과 김의철(1998)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변인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효능감과, 안전을 위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능감 및, 안전을 위해 주위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효능감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하였다. 안전을 위해 개인이 자기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주위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며, 나아가서 주위사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자의 안전효능감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련된 효능감과, 근로자나 경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효과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공무원은 작업자나 안전관리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안전에 관한 효능감을 갖는다. 즉 안전업무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효능감과,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효능감을 이 연구에서는 측정하였다. 안전효능감의 측정은 ‘전혀 못한다’에서 ‘매우 잘한다’의 5점 척도 상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작업자 안전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은 .79~.87, 안전관리자 안전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은 .89~.91, 공무원 안전효능감의 두 하위변인은 모두 .88의 양호한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김의철, 박영신과 박동현(2001)은 박영신, 박동현과 김의철(1998)이 개발한 작업자 안전효능감을 측정하는 세 하위변인의 측정문항 표현을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79, .83, .87로 양호하였다.

안전효능감의 변화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³⁾에 의하면, 학교수준별로 전반적인 안전효능감($F=35.12$, $df=3$, $p<.001$)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전효능감의 하위변인별 분석 결과도 자기조절 효능감($F=20.94$, $df=3$, $p<.001$) 주위사람도움 효능감($F=33.29$, $df=3$, $p<.001$) 주위환경조절 효능감($F=14.79$, $df=3$, $p<.001$) 모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이 학교수준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6은 안전효능감의 평균을 전체와 하위변인별로 각각 제시한 결과이다. 전체 안전효능감의 평균⁴⁾을 학교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생($M=3.3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M=3.06$)이며, 대학생($M=2.96$), 고등학생($M=2.95$)의 순서로 나타났다. Duncan 검증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생 집단과 중학생집단은 각각 이질적인 집단이며, 대학생과 고등학생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생의 안전효능감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높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낮은 안전효능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위변인별로 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은 초등학교생($M=3.41$)만 이질적인 집단이고, 나머지 중($M=2.88$) 고($M=2.92$) 대학생($M=2.92$)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생이 중 고 대학생에 비해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다는 의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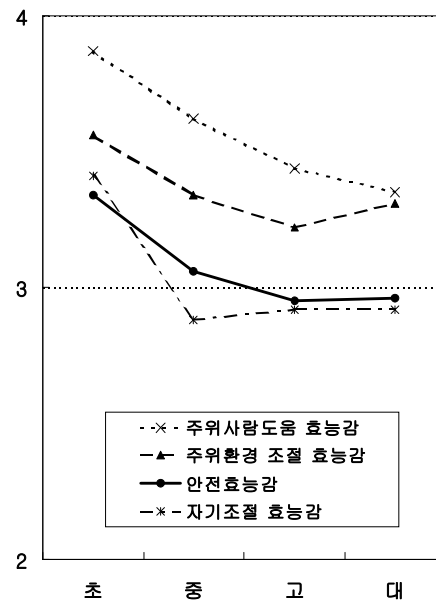


그림 6.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효능감

해석된다. 주위사람도움 효능감의 경우는 초등학교생($M=3.87$)과 중학생($M=3.62$)은 각각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M=3.44$)과 대학생($M=3.35$)은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따라서 주위사람도움 효능감은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높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주위환경조절 효능감은 초등학교생($M=3.56$)이 이질적 집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M=3.34$)과 대학생($M=3.31$)은 동질적 집단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M=2.95$)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학생이 가장 주위환경조절 효능감이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중에 가장 어린 초등학교생이 안전과 관련된 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김의철, 박영신과 박동현(2001)은 초, 중, 인문고, 실업고 및 대학생의 안전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김의철 등(2001)의 연구에 활용된 인문고와 실업고를 합하여 고등학생 집단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초, 중, 고, 대학생의 안전효능감의 차이를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4) Duncan검증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임.

안전효능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찾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김의철, 박영신과 박동현(2001)의 연구에서 밝혀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밝혀진 범주들이, 안전효능감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재분석해 보았다.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안전효능감 수준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18.50$, $df=4$, $p=.001$), 즉 높은 안전효능감 집단(77.8%)이 낮은 안전효능감 집단(71.0%)보다 더욱 ‘자기조절: 주의/조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13.1%)이 높은 집단(5.0%)보다 ‘없음’에 대한 반

응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주의하거나 조심하는 것과 같은 자기조절을 더욱 많이 하며, 이와 반대로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안전행동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측정한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지각을 토대로 간접적인 측정을 한 결과라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⁵⁾에 관한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자녀의 안전효능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세 하위변인, 즉 자기조절효능감 주위사람도움효능감 주위환경조절효능감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는데, 특별히 주위사람도움효능감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높은 안전효능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안전효능감과 자녀의 안전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안전효능감은 자녀의 안전효능감의 세 하위변인과 상관이 높지 않았으나, 정적인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의 안전효능감 중에서 특히 주위환경조절효능감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관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사회

표 1. 안전효능감수준 집단별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

안전사고 예방행동	안전효능감	높은 안전효능감	낮은 안전효능감
자기조절: 주의/조심		374 (77.8%)	299 (71.0%)
없음		24 (5.0%)	55 (13.1%)
건강관리		26 (5.4%)	23 (5.5%)
법규/규칙 지킴		25 (5.2%)	20 (4.8%)
기타		32 (6.7%)	24 (5.7%)
전체		481 (100.0%)	421 (100.0%)

5) 김의철, 박영신과 박동현(2001)의 연구에 활용되었던 data를 재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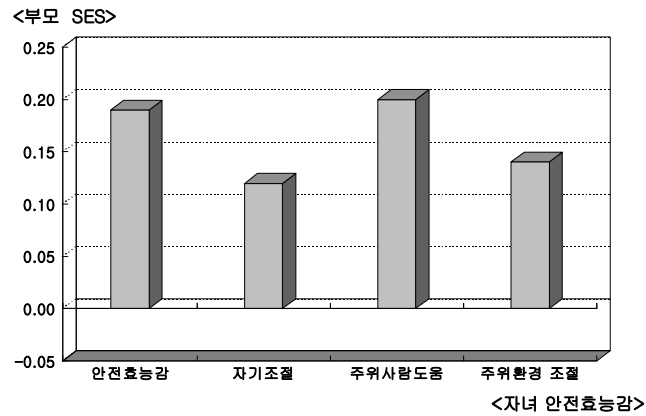


그림 7.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자녀의 안전효능감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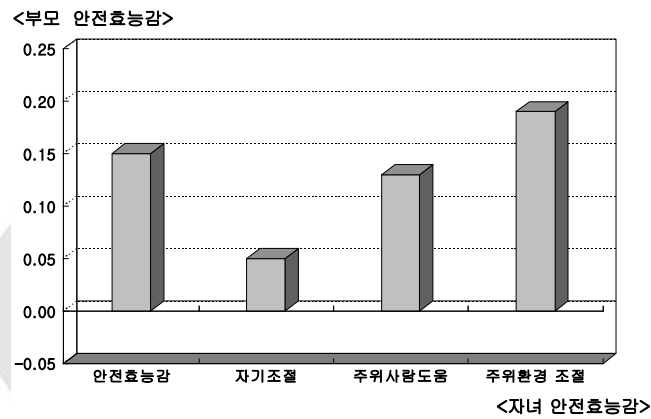


그림 8. 부모의 안전효능감과 자녀의 안전효능감의 상관관계

경제적지위나 부모의 안전효능감이 자녀의 안전 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한국 청소년의 안전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해 볼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안전효능감의 감소 경향성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 중에서 가장 연구자의 흥미를 끄는 사실은,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효능감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으로도 성숙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안전을 관리해 나갈 잠재적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과 반대로 선행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오히려 안전효능감이 매우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안전효능감의 개념 정의와 하위변인은 산업현장의 작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 적합한 안전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을 통해 시도되었다. 그 후에 작업자용 안전효능감(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의 하위변인을 기초로 측정 문항을 청소년에 적절하게 수정한 안전효능감 측정도구(김의철, 박영신, 박동현, 2001)가 제작되었다. 아직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비록 안전효능감은 아니지만,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교보다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은 안전효능감의 감소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효능감의 감소 경향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후속연구에서 필요하다. 만약 현재의 선행연구들에서 시사되고 있는 바처럼 청소년기 동안 자기효능감의 감소 현상이 타당한 결과로 확인된다면, 왜 한국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초기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것인가? 왜 한국 청소년들의 안전효능감은 신체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증가하고 인지적으로도 성장하는 것과는 반비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보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

특히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이다.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이 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분석하므로써, 안전행동을 간접적이거나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안전효능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안전사고 이후에 아무런 예방조치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전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기조절식 예방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를 시사하는 결과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를 측정(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하였을 때, 안전행동의 실천 정도와 자기조절 효능감($r=.40$), 주위사람도움 효능감($r=.39$), 주위환경조절 효능감($r=.41$)의 상관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써, 산업현장 작업자들의 안전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동현(1999)은 안전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안전행동이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안전효능감의 증진방안으로,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 구체적인 작업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효능감의 개발, 숙달모델링을 위한 모의상황과 실제상황에서의 응용, 안전행동의 단순모방이 아닌 안전관련 기술의 생산적 활용, 안전과 관련된 자기조절효능감의 중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안전하거나 위험한 절대적인 환경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안전행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변인들을 제작하여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인간 행동에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Bandura(1997)의 이론을 안전과 같은 영역 특수한 분야에서 검증해 보는 것은 연구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Bandura(1997)의 이론적 가정과 일치하여, 안전효능감이 안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경험적 결과들이 누적적으로 밝혀진다면, 사람들의 안전행동 증진을 위해 핵심적 기여를 하는 심리적 구인으로서 안전효능감의 증진 방안 모색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표상을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의 종합을 통해 밝혀진 토착심리학적으로 대표적인 결과는, 현저한 자기조절 경향성,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가족의 중요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분석(Han, Park, & Kim, 2001)에서도 확인되었다. Kim, Park과 Park(1999)은 한국인의 성취의식이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표상에 있어서도 독특하게 나타나는 고유한 심리현상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안전관련 토착심리로서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응답을 질적으로 분석(그림 2 참고)한 결과, 다른 원인들은 20% 미만의 매우 낮은 반응률을 나타낸

반면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가 ‘자기조절 결여: 부주의’를 지정한 사실에 토대한다. 특별히 초등학생(66.8%)과 중학생(62.1%)은 60.0% 이상의 응답자가, 자기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질문하였을 때, 대학생(65.1%)을 제외한 초·중·고등학생 응답자의 70% 이상이 모두 ‘자기조절: 주의/조심’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한덕웅과 이경성(2002)이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을 정리한 결과, ‘운전당사자의 주의/경제 소홀’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은 그동안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분석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에서 거듭 확인되어온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 청소년들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기조절을 지각하였으며(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교통스러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기조절이 확인(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되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자기조절만이 아니라 환경통제에 대한 관심과 관리능력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영신과 김의철(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중등 학생들 경우에 놀이나 장난 중 가소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놀이 기구라든가 놀이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순철(2000)은 한국의 교통문화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보행자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보행자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보도와 차도의 분리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Park과 Kim(1999)도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조절에만 치중하므로써 환경통제가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되었다. 물론 박영신과 김의철(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의 내용으로 서 ‘병원후송/응급조치’ ‘간호’ ‘치료’ ‘정서적 위로’의 순서로 반응률이 나타났지만, 병원후송이라든가 간호 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이 지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성취(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의 극복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회적 지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결과에서도, 가족은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의 연구에서도 초 중 고 대학생집단 모두에게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심각한 안전사고를 경험한 뒤에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도움이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반응률은 3.2% 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가족은 70.9%나 된다는 사실로부터 가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제공자의 측면에서 볼 때, 학교수준 집단별로 변화가 있었다. 물론 대학생 집단 내에서도 가족이 친구보다 훨씬 높은 반응률을 보였지만, 초등학생에서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친구가 상대적으로 점차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초기에서 후기로 됨에 따라 친구가 점차 중요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에 대한 분석(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에서도 확인되

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가장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은 초등학생의 31.9%가 지적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대학생에서는 51.2%가 반응하였다. 반면에 가족의 도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41.5%가 지적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대학생에서는 21.2%가 되었다. 한편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친구의 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반대 경향을 나타내었다.

부모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안전관련 토착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안전효능감이 자녀의 안전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안전효능감이 자녀의 안전효능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효능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안전행동 또는 안전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안전효능감 뿐만 아니라 안전행동이나 안전사고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을 부모자녀관계의 맥락 속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 사회문제 맥락 속에서의 접근: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청소년의 안전사고나 안전관련 토착심리에 대한 분석이 청소년의 심리나 또는 가정에서 부모 영향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안전사고가 개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의 경우는 집단적인 사고로 사고 피해의 범위가 훨씬 큰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00년 7월 14일에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탄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21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현실이, 수학여행을 가던 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1999년 6월 20일 새벽에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련원에 왔던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등 성인 4명이 사망하는 사고의 경우도, 단순 화재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참사의 원인이, 부실공사의 허가를 지시한 군수와, 이를 묵인한 비리 공무원 및, 건축법을 위반하며 부실 시공을 한 악덕업자 등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나, 1994년 10월 21일에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성수대교의 사고요인을 분석해 보아도 공사기간이 짧았고 용접부실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는 예정가의 60-70% 정도의 덤핑수주로 인해 원천적으로 부실요인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준공검사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에

의해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 사망 501명에 부상 937명의 대형 참사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도 감독관청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점 검토없이 허가를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전문지식 없이 형식적인 중간 준공검사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대형 사고원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처럼, 한국사회의 부정부패가 대형 안전사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과 한상환(2000)은 한국 사회의 안전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의 안전문화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산재지정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산업재해 환자를 병상에서 직접 면접한 결과, 부패한 한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무력감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IMF 시대 이후 공기단축으로 무리하게 작업하다 낙상해 하반신이 마비된 건설작업자는, 본인만 주의한다고 건축현장에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즉 기업주가 안전과 관련된 법규나 안전장치의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프레스 작업을 할 때 안전장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전장치만 있으면 손이 절단되는 등의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모든 프레스 기계에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작업자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고 싶어도 기업주나 관리자들이 허용하지 않을 때, 안전의 중요성과 나아가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기업주나

관리자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기업주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눈가림식으로 봐주기를 할 때, 작업자들은 무력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극심한 소외와 반사회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보면, 전체 91개 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은 42위에 머물고 있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한국인의 표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부패/비리’(고등학생: 24.3%, 아버지: 30.2%)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 결국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부정부패나 비리가 대형 안전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대형 안전사고의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 통찰할 수 있다. 즉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 지도자들의 청렴도와 사회 구성원들의 정직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상진, 김정인, 박정열과 손영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주차질서를 지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법을 지키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의식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준법정신의 결여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삶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인식에 기반을 둔 안전문화의 형성을 토대로 해야 하고, 더불어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풍토를 통한 사회 전반의 신뢰구축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에 터하여, 앞으로 ‘신뢰’에 관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2). 교원전산망 보도자료.
- 김의철, 박영신, 박동현. (2001).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과 안전효능감.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39~63.
- 박영신. (2001). 한국인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함의: 자기, 성취, 스트레스, 안전의식을 중심으로.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01~406.
- 박영신, 김의철. (2001). 한국 청소년의 안전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안전교육학회, 4(1), 5~24.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 안전교육의 방향 탐색: 작업자, 안전관리자, 공무원의 안전효능감의 중심으로.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4(1), 277~307.
- 박영신, 김의철, 박동현. (1999).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적 시사: 규제완화정책의 영향 분석과 안전효능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 5(2), 161~191.
- 박영신, 김의철, 송동빈, 박동현, 한상환. (2000). 기업의 안전문화 진단과 안전교육에 대한 함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 3(1), 6~3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

- 와 형성 및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
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
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
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사회의 문제
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334~339.
- 이순철. (2000).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행동으로
살펴본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59~174.
- 통계청. (2001a). 국제통계연감.
- 통계청. (2001b). 2001 한국의 사회지표.
- 최상진, 김정인, 박정열, 손영미. (2001). 주차위반
유발에 관여되는 위반상황 해석양식과 위
반자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
회문제, 7(1), 91~117.
- 한덕웅, 이경성. (2002). 도로교통사고를 유발한 원
인의 설명: 운전자와 교통경찰의 관점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41~59.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Han, K. H., Park, Y. S., Kim, U. (2001). Koreans'
consciousness about the safety: An indigenous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ASP), "Asian Social Psychology in
the 21st Century" p. 137.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Special Issue: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1 차원고 접수일 : 2002. 10. 5.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11. 25.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understanding of safety:
With specific focus on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ccidents,
safety efficacy and parental influence**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Korean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safety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es approach. This paper examines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of the type of accidents they were involved in, what they perceived to be the cause of the accident, the type of social support received after the accident, and the prevention needed to avoid future accidents. The indigenous understanding of accidents is examined according to the grade level of the students, gender, and safety efficacy beliefs. Second,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afety efficacy beliefs, the differences across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re examined.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efficacy belief and attitudes toward preventing future accidents is explored. Third, the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s' safety efficacy belief is examined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their safety efficacy belief on their children's safety efficacy belief and behavior. The review of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main points: (1) decrease in safety efficacy belief with increasing age, (2)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efficacy belief and behavior, (3) the utility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approach, (4) the parental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safety efficacy beliefs and behavior, and (5) the need to further explore, promote, and educate the importance of human life and quality of life by preventing accidents and promoting safety consciousness and behavior in Korea.

key words :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y on safety,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ccidents, safety efficacy, accident prevention, parental influence of children's safety efficacy, experience of accidents, cause of accidents, social support, self-efficacy.